

한중경제포럼

제12-02호 2012년 4월 13일

중국의 경제 현황과 전망 -양회 결과를 중심으로

2012년 제2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 중국의 경제 현황과 전망
2. 일 시 : 2012. 3. 22 (목) 16:00~18:00
3. 발표자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연구소 孙学工

1. 기존 경제운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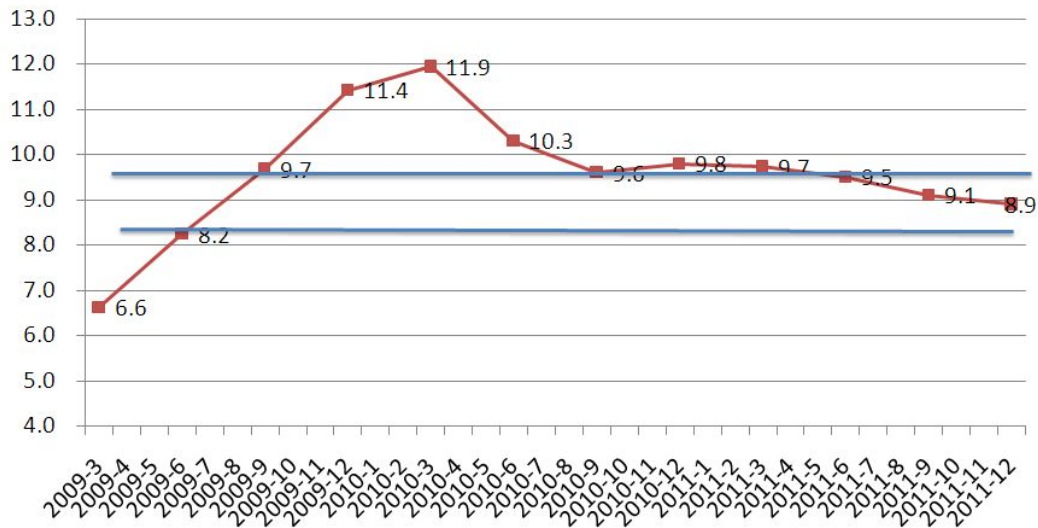
가. 경제성장률의 하향 조정 지속

□ 공급 측면에서 보면, 2011년 공업과 농업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였음.

- 농업부가가치는 4.5% 증가(전년대비 0.2%p 상승)하였고, 규모이상 공업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1.8%p 하락한 13.9% 증가하였고 2012년 1-2월 11.4% 증가하여 계속 하락세를 보였음.
-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동기대비 0.7%p 하락한 8.9% 증가하였음.

<그림1> 중국의 분기별 GDP성장률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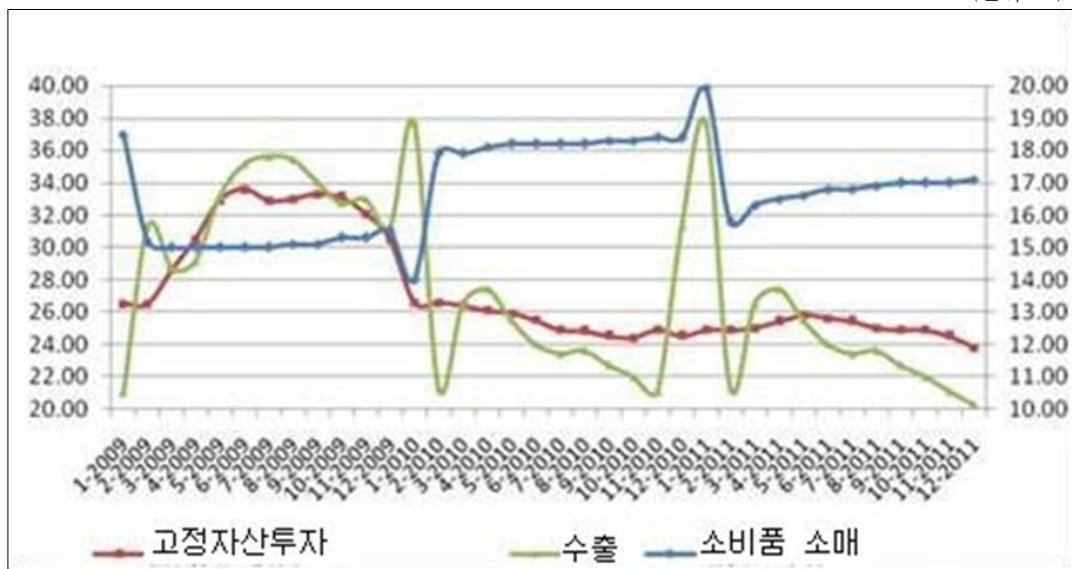
□ 수요 측면에서 보면, 투자, 소비, 수출의 증가율이 모두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정상적인 성장구간에 있음.

- 투자증가율이 소폭 하락하여 2011년 고정자산투자(농가 불포함)는 전년 동기대비 누적 23.8% 증가(전년대비 0.7%p 하락)하였으며, 가격요인을 배제할 경우 실질 증가율은 전년대비 1.3%p 하락하여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 2012년 1-2월 투자증가율은 21.5%로 계속하여 더딘 증가율을 보임. 주로 제조업과 인프라시설 투자가 둔화되었고 부동산투자 증가율은 2011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음.
- 소비증가율이 현저한 하락세를 보임. 2011년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전년대비 1.3%p 하락한 17.1% 증가하였음. 가격요인을 배제할 경우 실질 증가율은 전년대비 3.5%p 하락한 11.6%로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 2012년 1-2월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14.7% 증가하여 2011년 12월의 18.1%보다 현저한 하락세를 보임.

- 수출증가율의 하락세가 현저함. 2011년 중국 대외무역 수출증가율은 전년대비 12.7%p 하락한 20.3%였으며, 수입증가율은 기본적인 안정세를 보여 수출보다 4.5%p 높은 수준을 보였음. 무역 흑자는 누적 1,551억 달러로 전년대비 14.5% 감소하였음.
- 2012년 1-2월 수출입 전년대비 증가율은 2011년 12월보다 현저한 하락세를 보여 수출에 대한 우려가 커짐.
- 2012년 1-2월 수출과 수입의 동기대비 증가율은 각각 7%와 7.8%로 모두 2011년 12월보다 낮음. 2월 무역적자는 314.9억 달러로 월별 기준으로 역사상 가장 큰 적자규모를 기록하였음.

<그림2> 투자, 소비와 수출 월별 누적 동기대비 증가율

(단위: %)



□ CPI는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하기 시작함.

- 2011년 중국 주민소비자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며, 1/4, 2/4, 3/4분기 CPI 동기대비 상승률은 각각 누적 5.1%, 5.7%, 6.2%에 달하였음.
- CPI 동기대비 상승률은 7월 최고치(6.5%)를 달성한 후 기저효과 약화, 긴축 화폐정책, 주요 상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을 받아 8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4/4분기 하락세가 가속화되면서 12월 4.1%로 14개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 2011년 CPI는 5.4% 상승하였음.

- 2012년 1월과 2월 CPI는 각각 4.5%, 3.2% 상승하여 가격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나. 기존 경제운영 추세는 정책조정과 시장요인 및 공급충격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정책조정 요인: △ 건축 화폐정책, △ 정부투자 둔화, △ 부동산시장 통제, △ 소비부양책 퇴출 등

□ 시장요인: △ 해외수요 증가 둔화, 인기소비 품목 감소 등

□ 공급충격: △ 농산물, △ 주요상품 가격, △ 토지와 노동력원가 상승 등

다. 기본적 판단

□ 질서 있는 하락 속에서 국민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함.

□ 물가 급등 추세는 진정되었으며, 전환됨.

□ 경제에 일정한 리스크가 누적됨.

2. 경제운영에 있어 주요 문제점과 모순

가. 정부 채무리스크

□ 전반적으로 정부 채무규모는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음.

- 하지만 잘못된 상환기간 설정 등의 문제로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채무는 2012년과 2013년이 상환 절정기가 될 것임.
- 일부 지역과 산업에 국부적인 리스크가 있음.

<표1> 2010년 말 전국 지방성 정부채무의 향후 상환 계획

상환 연도	3개 채무 합계		정부채무		정부 보증채무		기타 채무	
	채무액	비중	채무액	비중	채무액	비중	채무액	비중
2011년	26,246.49	24.49%	18,683.29	27.84%	3,646.24	15.60%	3,916.44	23.46%
2012년	18,402.48	17.17%	12,985.69	19.35%	2,972.07	12.72%	2,447.89	14.66%
2013년	12,194.94	11.37%	7,992.74	11.91%	2,265.98	9.70%	1,937.6	11.61%
2014년	9,941.39	9.28%	6,174.07	9.20%	2,273.31	9.73%	1,491.07	8.92%
2015년	8,012.26	7.48%	4,932.55	7.35%	1,780.66	7.62%	1,296.91	7.77%
2016년 이후	3,2377.35	30.21%	16,341.17	24.35%	10,431.48	44.63%	5,605.75	33.58%
합계	107,174.91	100.00%	67,109.51	100.00%	23,369.74	100.00%	16,695.66	100.00%

나. 토지, 자원, 환경의 제약이 현저히 증대

□ 토지사용지표가 부족하고 사업 실시에 어려움이 있음.

- 1-8월 전국 계획 토지 사용지표는 이미 2011년 한해의 80% 이상을 차지하였고 이중 17개 성의 지표 사용률은 90%에 달하였으며, 12개 성은 2011년 계획지표를 이미 모두 사용하였음.

□ 2011년 이후 전력 공급은 줄곧 부족하여 기업의 착공률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음.

□ 에너지절약과 배출감축 상황이 심각함.

- 2011년 중앙정부가 공포한 2011년 에너지절약 배출감축 목표는 단위 GDP당 에너지소비를 동기 대비 3.5% 감소시키는 것이었지만, 사실상 2.1%만 감소시켰음.

- 기타 오염물 배출 상황 역시 낙관적이지 못함.

다. 부동산시장 통제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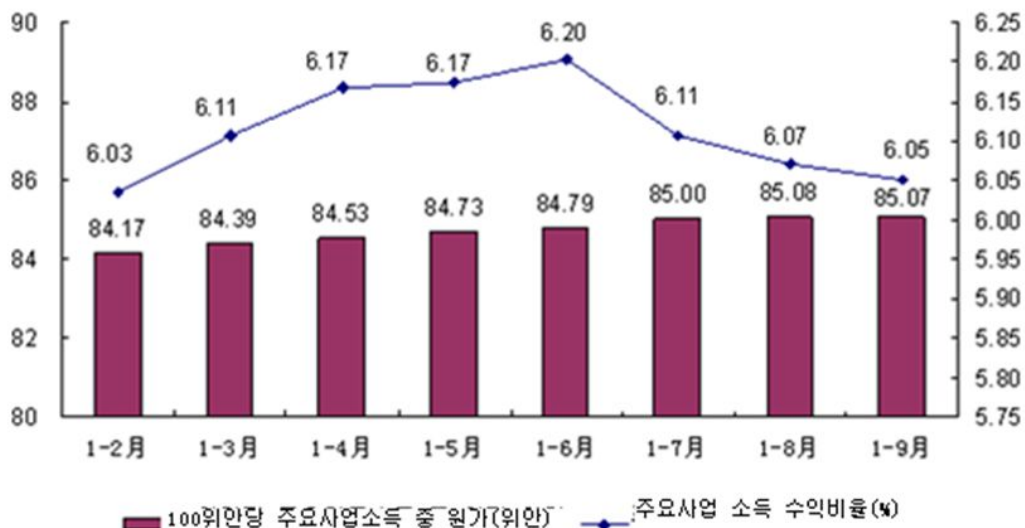
□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을 보면, 주택가격은 지나치게 높고 버블이 심각함.

- 하지만 레버리지 비율, 대출상환 현황에서 보면, 현실적인 구매력이 주택가격을 뒷받침하고 있음.

□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은 사회모순을 가져오지만, 주택가격의 하락 또한 일부 사람의 재산손실과 지방정부 소득감소, 금융기관 리스크 증대 등을 야기함.

□ 주택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주택판매와 부동산투자의 정상적인 성장을 유지해야 함.

<그림3> 기업 수익률 하락



라. 기업의 경영난 지속

- 원료가격 상승, 인건비 인상 등 요인의 영향을 받아 기업의 경영비용이 상승함.
- 부실기업 수와 결손금액의 증가율은 모두 경제회복 이후 최고치에 달하였으며, 기업의 수익 증가율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이중 소형, 초소형 기업의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졌음.

3. 2012년 경제성장 전망

가. 외부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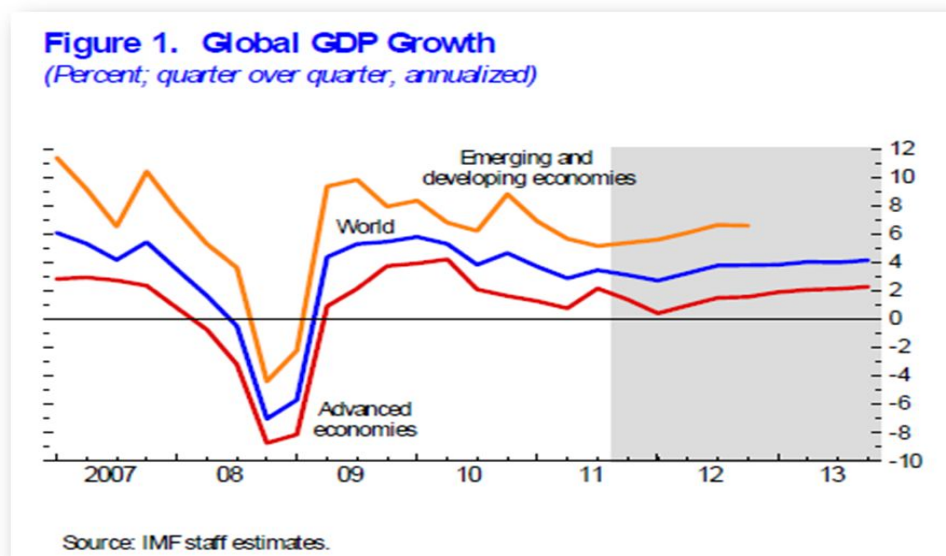
- 세계경제 회복이 느리지만, 더블딥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유럽과 미국의 채무위기, 금융체계의 취약성과 경기부양책 약화 등 요인의 영향, 특히 선진국의 실물경제에 새로운 성장점 부족으로 전 세계의 경제회복이 재차 침체되어 세계경제가 더욱 하락할 리스크가 상당히 큼.
- 2012년 1월 IMF "전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는 2012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3%(2011년 9월에 예측하였던 수치보다 0.7%p 낮음)로 전망하였는데 이중 △ 미국과 일본의 성장률은 2% 미만, △ 유로존은 경제가 다소 쇠퇴, △ 신흥국가와 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은 5.4%로 전망하였음.
- 이런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지만, 2009년 당시의 -0.7%인 전 세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것으로 세계경제에 더블딥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나.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음.

- 전 세계 경제회복이 침체되고 기존 국제에너지와 주요상품 가격에 이미 하락세가 나타났음.

- 석유와 금속 등 가격은 2011년의 최고점에서 하락하기 시작하였음.
- 농산물 역시 수확계절을 맞이함에 따라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음.
- 또한 리스크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투기자금이 유출되기 시작하였고 주요상품 시장의 순자금 유출 역시 현저히 증가하여 심지어 2008년을 초과하였는데 이는 주요상품 가격의 하락을 추진 하였음.

<그림4> 전 세계 경제성장률 변화추이



- 에너지와 주요상품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도 다소 완화될 것임.
- 그 외 2011년 이후 신흥시장 국가의 긴축된 화폐정책의 강화로 점차 정책효과가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비율이 하락할 것임.
- 하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음.
- 특히 주요상품 시장은 장시간 긴축운영 상태에 있을 것이고 개도국과 신흥시장의 수요는 여전히 많을 것임.

-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지역 충돌로 인한 돌발사건의 영향을 받을 경우, 주요상품 가격이 여전히 장시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어 비교적 큰 폭의 변동이 생길 것으로 전망됨.

다. 전반적으로 국내 발전환경에 유리하지만 리스크 요인을 무시할 수 없음.

□ 2011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 하락하였지만,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공업화, 도시화, 소비구조 업그레이드, 소득 증가 등 요인에 기본적으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기에 2012년 경제성장은 여전히 적극적인 요인이 많음.

□ 정책운용 여지가 확대됨.

- 재정수입 증가속도가 빠르고 화폐정책도 완화될 여지가 비교적 큼.

□ 최근 인프라시설 건설로 교통운송 능력이 향상되었음.

- 하지만 중국의 철도망은 여전히 미국의 1880년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5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80여개 도시에 여전히 지하철이 들어서지 않고 있음.

- 중국의 평균 인적자본스톡은 미국의 8%와 한국의 15% 수준에 불과함.

□ 중국의 일인당 GDP는 말레이시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라. 2012년 주요 경제성장 목표

□ 2012년 중국 경제성장은 많은 복잡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고 국내외적으로 모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불리한 요인이 존재함.

□ 하지만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좋고 잠재 성장력도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조치를 취할 경우 계속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국내 생산총액 성장률을 7.5%로 확정함.
- 도시 신규 고용창출을 900만 명 이상으로, 도시 등록 실업률을 4.6% 이내로 확정함.
- 주민소비가격 상승률을 4% 내외로 확정함.
- 수출입 총액 증가율을 10% 내외로 확정하고 국제수지 상황을 계속하여 개선할 것임.

<표2> 향후 중국 잠재성장률 변화 추이 (2011년~2020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
잠재 성장률	9.1	8.3	8.2	8.4	8.2	7.9	7.3	7.3	7.2	7.0	7.9

□ 투자가 다소 하락할 것임.

- 상품주택 투자, 수출산업 투자가 현저히 감소할 것임.
- 보장성 주택, 수리공사, 민생, 전략적 신흥 산업, 산업 이전이 촉진될 것임.
- 인프라시설 투자가 지속될 것임.
- 전반적으로 투자는 여전히 다소 하락세를 유지할 것임.

□ 소비증가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 도시 취업확대, 임금상승, 농산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도시와 농촌 주민소득의 지속적인 상승, △ 사회보장제도의 완비와 확대, △ 민생재정 증대, △ 새로운 소비단체의 확대, △ 인플레이션 하락 등이 소비증가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하지만 경제성장의 둔화는 일부 계층의 취업과 수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신뢰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임.

□ 수출이 현저하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대외무역형세는 더욱 심각해지고 중국의 수출은 세계경제 침체로 경제위기 이후의 저속

성장기에 들어설 것임.

- 2012년 대외무역 수출이 직면한 불리한 요인이 비교적 많음.

- 첫째, 세계경제 성장 침체로 해외수요가 둔화될 것임.
- 둘째, 세계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무역보호주의의 대두로 중국의 수출은 더욱 높은 수준의 무역장벽과 더욱 많은 무역 갈등에 직면하게 될 임.
- 셋째, 국내 각종 요소가격의 상승(△ 토지와 노동력 원가, △ 원료원가, △ 위안화 환율 절상 등)은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임.
- 넷째, 무역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임. 2009년 5월 이후 중국의 수출가격 상승률은 줄곧 수입가격보다 낮고 수출효과는 하락하여 경영의 어려움이 증대되었음.

□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첫째, 국제 수입 인플레이션 압력이 2011년보다 작음. 둘째, 생산유통, 특히 농산품에 대한 지원이 강화됨. 셋째, 감독을 강화하고 시장 질서를 규범화함.
- 하지만 장기적으로 크게 변화가 없을 토지와 노동비용 상승, 가격개혁 등이 어느 정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 이므로 물가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함.

4. 정책 동향

가. 2012년 정책 기조

- 2011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12년 경제 정책 기조로 "안정 속 성장(稳中求进)"을 제시하였음.
- 이에 따라 △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 유지, △ 경제구조 조정, △ 기대 인플레이션을 계속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함.

- 또한 경제성장 방식 전환과 경제구조 조정을 가속화하며, 국내수요 특히 소비수요를 확대하고 자주혁신과 에너지절약, 배출감소를 강화하며,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민생보장과 개선을 강화함.

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

□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합당한 재정적자와 국채규모를 유지함.

- 2012년 재정적자를 8,000억 위안 정도로 잡아 적자율을 1.5% 정도 하락시킬 예정임. 이중 중앙 재정적자가 5,500억 위안, 대리 발행하는 지방채무가 2,500억 위안임.
- 재정지출 구조를 최적화하고 중점을 확실히 하며, 민생분야에 중점을 두고 취약한 부분을 강화하며 근검절약을 중시함.
- 구조적 감세를 실시하고 소형, 초소형 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각종 조세 우대정책을 실시 완비하며,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시키는 시범개혁을 추진함.
- 계속하여 행정사업성 비용과 정부기금에 대한 정리, 통합조정, 규범을 추진하며 지방정부 채무 관리와 리스크 방지를 강화함.

다. 안정적인 화폐정책을 지속 실시

□ 각종 화폐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화폐대출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며, 사회용자 규모의 합리적인 성장을 유지함.

- 광의화폐는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신용대출 구조를 최적화하고 건설 중이거나 추가 건설 중인 국가 중점 사업과 보장성 주택 건설을 지원하고 산업정책에 부합되고 시장수요가 있는 기업, 특히 소형과 초소형 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을 강화하여 실물경제의 융자원가를 감소시킴.

- 체계적 금융리스크 방지와 감독관리 조율 메커니즘을 구축, 완비하고 리스크 저항능력을 강화시키며, 국제 자본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
- 각종 대출행위를 규범화하고 민간융자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함.

라. 소비확대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

□ 소비수요를 적극 확대함.

- 장기적으로 유효한 소비확대 메커니즘 구축을 강화하고 소득분배 구조를 대대적으로 조정하여 중저소득계층의 소득을 증대시켜 주민소비 능력을 향상시킴.
- 주민소비 장려 정책을 완비하고 국민연금, 가사 관리, 건물관리, 의료보건 등 서비스업을 적극 발전시킴.
- 문화, 관광, 스포츠 등 소비를 장려하고 새로운 휴가 제도를 현실화함.
- 인터넷 쇼핑 등 신형 소비경영 방식을 적극 발전시키고 친환경 건축자재, 용수 절약형 위생설비, 에너지 절약형 자동차 등 녹색소비를 유도함.
- 소비대출을 확대하고 도시와 농촌의 유통 시스템과 도로, 주차장 등 인프라시설 건설을 강화하며 제품 품질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환경을 개선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함.

마. 투자구조 최적화

- 투자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투자의 안정적인 증가를 유지하며 투자와 소비의 양성 교류를 촉진함.
- "민간투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장려 유도에 관한 국무원의 약간 의견¹⁾"을 실시하고 추진 가능

성이 있는 실시세칙을 제정함.

-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투자의 유도역할을 강화하고 건설 중이거나 추가 건설 중인 공사를 우선적으로 책임지며, 국가 중대 사업의 착공과 건설을 질서 있게 추진함.
- 토지, 신용대출,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안전, 품질 등 기준 관련 심사를 엄격히 단속하고 중대 사업, 특히 정부와 국유투자 사업에 대한 감독 조사를 강화하며 투자의 질과 효익을 증대시킴.

바. 부동산 시장 조정과 보장성 주택 공사 건설을 계속하여 추진

- 투기와 투자 성격을 가진 수요 억제 정책과 조치를 엄격히 실시하면서 통제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여 주택가격의 합리적인 하락을 촉진함.
- 보장성 주택 공사 건설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품질 확보 전제하에 500만 채를 완공하고 700만 채 이상을 새로 착공함.
- 보장성 주택 건설, 입주, 관리, 정책퇴출 등 제도를 조속히 완비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일반 상품주택의 공급을 확대함.
- 도시주택 정보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고 부동산 관련 조세 제도를 개혁하여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촉진함.

사.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 전략적 신흥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
- 신에너지 이용 촉진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계획통합, 관련 사업, 정책유도를 강화하며 국내수요를 확대하고 태양에너지, 풍력발전설비 제조능력의 맹목적인 확장을 방지함.

1) 《国务院关于鼓励和引导民间投资健康发展的若干意见》

- 차세대 정보기술을 발전시키고 네트워크 인프라시설 건설을 강화하며, 삼망융합이 실질적 성과를 이루도록 추진함.
- 첨단장비 제조,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바이오의약, 신에너지 자동차, 신재료 등 산업을 크게 발전시킴.
- 기술개조 특별 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전통산업 개선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며, 자동차, 철강, 조선, 시멘트 등 산업을 중심으로 증가량을 통제하고 재고량을 고도화하며, 기업의 M&A를 추진하여 산업 집중도와 규모 이익을 증대시킴.

아. 외자이용의 질적 향상

□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외자를 이용하고 구조 고도화와 질적 향상을 더욱 중시함.

- 새롭게 수정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을 실시하고 선진 제조업, 하이테크산업,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산업, 현대 서비스업과 중서부지역에 더욱 많은 외자가 투입되도록 유도함.

<질의응답 >

질문 1.

중국의 주택공적금은 직장인 월급의 24% 내외에 달하는 큰 규모이며, 지방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지방정부는 이렇게 큰 규모의 주택공적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 외 기존 지방 채무에 주택공적금을 포함시킨 것인가?

답변 1.

주택공적금의 구체적인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름. 일반적으로 주택공적금은 주택구입 대출에 많이 활용됨. 즉 주택공적금을 납부하는 직원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인테리어를 할 경우 주택공적

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 주택공적금 대출 이자율은 상업은행의 대출 이자율보다 낮아 혜택을 볼 수 있음.

그 외 정년퇴직 인원은 주택공적금 잔액을 일차적으로 인출할 수 있음. 2010년 중국 심계서(審計署)의 통계에 따르면, 지방정부 채무는 주택공적금과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질문 2.

2012년 민영기업, 특히 소형, 초소형 기업의 자금난 문제에 대해 은행대출 지원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 것인가?

보장성 주택에 대해 2011년에 1,000만 채, 2012년 1,000만 채 착공한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 2012년 700만 채 착공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을 수정한 것인가 아님 계획이 원래 1,000만 채인가?

답변 2.

소형과 초소형 기업의 대출 문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쉽게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중국은 대규모 국유은행을 위주로 하는 은행시스템으로 인해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관점이 있음. 소형과 초소형 기업에 대한 대출지원은 여전히 기존 은행시스템에 의존하며, 금융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통해 점차 완비해야 함. 예컨대 소형 금융기관, 지역사회내의 은행, 민간융자 등에 대한 개혁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기존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많이 실시하고 있지만, 그 실제효과는 이상적이지 못함. 조세에 있어, 소형과 초소형 기업에 대한 감세조치가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 융자방식을 보면, 내생적 융자(內源性融資)와 대외융자 두 가지가 있는데 소형과 초소형 기업은 내생적 융자를 위주로 하기에 내생적 융자를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임.

2012년 재정정책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개혁, 소형 납세기업에 대한 과세액 감소 등 개혁조치를 비롯한 구조적 감세문제를 언급하였는데 이런 감세방법을 통한 소형과 초소형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효과가 더욱 현저할 것으로 예상됨.

보장성 주택 건설은 신규 착공, 완공, 건설 중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을 포함함. 2011년에 1000만 채를 신규 착공하였고 2012년 500만 채 완공하며 700만 채를 새로이 착공할 계획임. 건설 중인 보장성 주택은 최소 1000만 채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됨. 2012년 신규 착공 수는 700만 채로 2011년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이는 2011년에 이미 결정된 것임.

질문 3.

현재 중국의 금융시스템 개혁, 특히 중소기업의 융자난 완화 조치 등은 법률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 최근 들어 저장성을 위주로 하여 민간대출 문제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음. 개인적으로 보면, 현재 중국의 금융시스템은 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높는데 이와 관련해서 법률적 지원을 통해 민간자본의 대출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중국의 경제를 보면, 전반적으로 펀더멘털이 좋은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자본시장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 논리적으로 보면, 경제가 좋은 성장세를 보이면, 자본시장도 안정되어야 하지만, 중국의 주식시장은 줄곧 불안정적임. 이와 관련해서 인지세 취소 혹은 기타 감세조치를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없는가?

답변 3.

민간금융 개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임. 현재 중국의 민간금융은 금융체제로부터 배제되어 있기에 정부에서 감독관리 하기 어려운 부분임. 하지만 민간금융은 수요가 있기에 존재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민간금융에 대해 법률적으로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여기서 문제점은 이런 민간금융에 대한 개혁 추진속도임. 즉 지도층은 개혁을 시도하지만, 실제 추진과정에 애로사항이 많음. 법률이나 개혁 절차, 여러 부서간의 이익관계 등으로 인해 상당히 완만한 속도로 추진되고 있음. 하지만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금융시스템 개혁에 대한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어 개혁속도는 과거보다 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인지세 취소 방법은 과거 사용한 적 있으며, 향후 재차 사용할 가능성도 있음. 하지만 향후 중국의 주식시장을 비롯한 자본시장의 장기적 발전은 각종 제도의 완비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함. 인지세 취소는 일정 역할을 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님.

또한 중국의 주식시장은 자체적으로 문제가 많음. 따라서 상장회사에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배당하지 않거나 기업내부정보를 거래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주식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질문 4.

정부 채무를 최대화시킬 경우 GDP의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항목을 포함하는가?

지금 중국에서 구조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소비확대, 내수확대를 적극 제창하고 있음. 소비확대를 위해 각종 조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개인소득세 과세기준 향상 조정이나 임금상승 등 방법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함.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

답변 4.

채무의 최대한 범위를 보면, 사회보험, 의료보험, 금융기관의 특수한 금융채무, 철도부문 및 유사 기관에서 발행한 채무 등을 비롯한 정부에서 상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채무를 포함시킨 것임. 이중 철도부문 및 유사 기관에서 발행한 채무는 성격상 기업채무지만, 중국은 정부와 국유 기업을 구분하지 않으므로(政企不分) 정부에서 상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음.

개인소득세 과세기준을 더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임. 개인적으로 중국의 중산층을 육성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과거 몇 년간 중국의 중산층은 급격히 상승한 주택가격 등으로 인해 이미 많은 재산손실을 입었음. 사실상 인플레이션은 저소득층의 소득상승에 유리한 것임. 2011년 농민소득 실질 증가율(물가요인 배제)은 11%, 도시주민 소득 실질 증가율은 7%였음. 향후 사회 안정을 뒷받침해줌에 있어 중산층이 큰 역할을 할 것이므로 중산층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음.

2011년에 개인소득세 과세기준 상향 조정을 통해 현재 샐러리맨 중에서 20%만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개인소득세 개혁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제한적이고 단기내 소비확대에 대한 역할도 현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질문 5.

2012년 2월 무역적자는 300억 달러로 역사상 월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하셨는데 업종별로 어느 업종이 좋은 양상을 보이고 어느 업종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는가?

민간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적극 개방하거나 특별히 제한하는 업종은 어느 것인가?

답변 5.

최근 중국의 수출입에 있어, 유럽과 아세아에 대한 수출이 비교적 많이 감소되고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은 여전히 비교적 좋음.

공업 생산 업종별로 보면, 기계설비, 전기가전제품, 컴퓨터정보산업, 교통운송설비(자동차) 등의 수출 증가율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민간투자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업종은 위에서 언급되었음. 정부가 특별히 제한하는 업종은 주로 "에너지 소비가 높고, 오염이 많은 업종"임.

질문 6.

자료에서 국제수지를 계속하여 개선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개선이라는 의미는 과도한 무역흑자를 계속하여 줄이는 것인가 아니면 무역균형을 안정적으로 추구하는 것인가?

물가상승률 목표를 4%로 확정하였는데, 중국입장에서 보면 적절한 것인가 아니면 높거나 낮은 것인가? CPI를 3%로 예측하는 시각도 많은데 차이점은 무엇인가?

답변 6.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말하는 국제수지의 개선은 무역흑자를 감소하고 점차적으로 무역균형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함.

2011년에 무역흑자가 대폭 감소하였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로 하락하여 G20에서 설

정한 4% 이내 수준에 달하였고 기존 중국의 무역흑자와 적자는 기본적인 안정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음.

여기서 말하는 국제수지의 개선은 무역균형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함. 지금 무역흑자의 감소는 세계경제 둔화, 특히 미국과 유럽경제 둔화로 인한 것이고 세계경제가 회복할 경우 무역흑자는 재차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관점도 있음. IMF는 5, 6년 내에 중국의 무역흑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 8%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따라서 정책조치를 통해 무역균형 유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 필요함.

4%의 물가상승률은 각종 요인을 감안하여 얻은 결과임. 즉 주요상품 가격 변화, 원가(토지와 노동력원가)상승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가격개혁의 실시를 위해 일정 여지를 남겨둔 결과임.

2012년 경제성장에 비추어 보면, 4%의 물가상승률이 비교적 적절하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3%가 적절하다고 생각함. 즉 물가상승률은 중장기와 당해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조정목표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2011년의 경우 5%~6%의 물가상승률도 정상적인 수준으로 받아드릴 수 있다고 생각함. 단기 내 낮은 물가상승률만 추구할 경우 경제성장 면에서 상당히 높은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임. 단기변화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나치게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